

# 서울서 전주한지 아름다움 · 우수성 알린다

전주천년한지관, 23일까지 서울 'LCDC SEOUL' 서 전주한지 홍보 '유영하는 한지'展 진행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팝업 전시가 서울서 열린다.

전주천년한지관은 오는 23일까지 서울 'LCDC SEOUL'에서 전주한지 홍보를 위한 '유영하는 한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팝업 전시에서는 한지 본연의 질감과 특성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한지 관련 설치 작품과 전주 문화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오랜 시간 전통의 맥을 이어 오고 있는 전주한지를 소개하고, 195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 '한지골'로 명성을 떨쳤던 전주 흑석골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느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다나무'와 '물'에 초점을 맞춰 증기에 찌진 다나무가 결결이 찢어져 원료가 되고, 또 물속에서 유영하듯 떠다니는 닥섬유가 얇고 섬키며 한지로 만들어져 일상에서 활용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상에서 사용되는 전주한지의 다양한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친환경적인 한지의 장점을 살린 향주머니, 향뿔이개와 흑석골의 자연을 담은 그림엽서, 불입한지, 한지 오브제 등도 소개된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이번 팝업



전주천년한지관은 오는 23일까지 서울 'LCDC SEOUL'에서 전주한지 홍보를 위한 '유영하는 한지'를 운영한다.

전시를 통해 전주한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온몸으로 느껴보길 바란다"면서 "전시 기간 내에 문화상품을 증정하는 SNS 이벤트 등이 준

비패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정읍 역사 담긴 유물 · 기록 찾아요"

정읍시립박물관, 3월 6~10일 박물관 전시 · 연구 부합 각종 유물 공개 구입

정읍시가 '정읍시립박물관'의 전시·연구 자료로 활용할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시는 정읍시립박물관이 지역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시·연구 자료 활용과 지역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매년 정읍과 관련된 유물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지난해는 창안 이삼만, 동초 김석근, 소제 이상길, 효강 박득봉 등 정읍 서화실 신설과 관련된 유물과 보천교, 무성서원, 일제감정기 정

읍 모습 등을 담은 다양한 유물을 확보했다.

올해는 수집 범위를 확대해 역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정읍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기록물을 구입 대상으로 정했다.

유물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 소장자,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또는 단체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정읍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직

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대상 유물은 소장 경위가 분명해야 하며, 도굴품이나 도난품 등 불법 유물이나 출처와 소유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신청 유물에 대한 서류심사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물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립박물관(063-539-6792)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치 있는 우리 문화재를 안전한 보존환경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유물 구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상반기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22일까지 모집

무주군이 2023 상반기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음악·그림·악기 등 다양한 장르·분야에서 운영될 프로그램에 참여할 2023년 상반기 문화학교 수강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군민이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문화원 회원가입과 함께 회비 2만 원과 강좌별 수강료 3

만 원(재료비 별도)을 납부하면 된다. 강좌 신청은 무주문화원 사무국에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오는 3월 6일부터 상반기 15회 차(화·수·목·금)로 진행되는 이번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천아트를 비롯한 통기타, 보타니컬, 해금, 민요, 서예, 수묵화, 고고장구 등 15개 강좌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은 문화원 교육장과 최

북미술관 세미나실, 다목적영상관 등에서 진행되며, 다년간 관련 장르 및 분야에서 활동한 유능한 강사가 초빙됐다.

무주문화원 평가상 원장은 "2023 상반기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주로 예비 희망자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과목을 개설했다"며 "문화학교 참여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 상반기 문화학교 수강을 희망하는 군민은 무주문화원 사무국(063-324-1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은 오는 26일까지 '소설소설 혼불 토크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 "'혼불' 함께 읽으며 따뜻한 위로 얻어요"

혼불기념사업회 · 최명희문학관, 소설소설 혼불 토크아보기 || 참가자 모집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은 오는 26일까지 '소설소설 혼불 토크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선 접수자 30명을 선정한다.

이에 따르면 이 행사는 열 권 분량인 소설 '혼불'의 완독을 돕기 위해 참가자들이 각 권의 특징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작품을 함께 낭독하는 것이다.

올해는 3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격주 목요일 오전 10시(120분), 총 11회의 강의와 체험이 마련됐다.

신청은 최명희문학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메일(jonjuhonbul@nate.com)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이 프로그램으로 '혼불' 완독에 성공한 사람만 모두 420여 명이다. 수강생 중 우수 참가자에게는 혼불완독증과 전라북도 작가들의 도서도 증정할 예정이다.

최기우 관장은 "'혼불'을 펼쳐 혼전만 한 언어의 잔치를 누리다 보면 오히려 독자 스스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고 싶어진다"면서 "쓸쓸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유달리 많은 지금, 소설 '혼불'을 함께 읽으며 마음 쓰이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위로의 문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4-0570)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Piano on Festival, 예술과 미디어' 공연 열린다

장수군, 17일까지 5일간 장계면 논개골 행복나눔터서 진행

장수군이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Piano on Festival, 예술과 미디어' 공연을 13일부터 닷새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앙상블 단체 Piano on과 함께하는 예술과 미디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매일 각기 다른 내용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오후 7시 장계면 논개골 행복나눔터에서 펼쳐진다.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속 OST와 클래식 작품들을 편곡하여 새로운 느낌으로 재해석해 들려줘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모던타임즈 △시네마 천국 △라라랜드 메들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트롭과 제리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의 수록곡을 연주하며 배경영상, 무대 해설, 연주자들의 대담과 함께 진행된다.

공연은 누구나 선착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문화관광과(063-350-2316)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